미군측 기지사용료 인상요구와 관련 시장님 서한문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진행중인 공군기지 사용료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민과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약만료일인 '97. 12. 7일이 임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8일에는 각급 시민단체에서 수백명이 참여하여 『자전거로 여는 평화의 날』 행사와 더불어 군산미공군기지 앞에서 기지사용료 인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산시 의회에서도 기지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까지 기지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귀 기지로 인하여 받는 우리시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려운 한국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귀측의 일방적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민들은 귀 기지의 비행기 소음으로 기지주변에 거주하는 10,000여명의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지역 주변이라는 이유로 건축행위시 고도제한을 받는등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공군기지가 평화유지군 주둔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시민 모두가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절하는 기지내 쓰레기 수거를 우리시에서 원가만 받고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시민이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하고있는 헌신적인 노력과 어려운 시민경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기지사용료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귀측에 대하여 시민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자칫 한미우호관계에 나쁜영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인도적이고 민주적인 몇가지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첫째 : 기지사용료 인상은 우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충격을 주지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 군산공항은 우리나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서해안지역 발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 협상이 양국 정부차원의 문제라고 해서 주둔지역 시민의 의사가 무시 될 수 없으며 우리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협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넷째 : 귀 기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산시장과 기지사령관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노력 할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시 입장이 수용되리라 확신하면서 기한내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한.미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의 가호를 기원합니다.

1997. 11. 19

군 산 시 장 김 길 준